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14)

시키보 - 잔털이 많은 실로 호평 받아

시키보는 많은 면 방적 회사들처럼 “컴팩트(compact)사”나, 이보다는 못하여도 정방기를 개조함으로써 “잔털이 적은 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시키보가 개발한 “LS-Y”는 실의 품질이 균일하고 넵이나 잔털이 적은 고급 선염사로서, 이 실로 제직한 직물은 중국에 수출할 만큼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엉뚱한 정반대의 발상이 뜻밖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수도 있다. 시키보의 제품 제1사업부 니트과에서는 “다른 실보다도 잔털이 많으면, 그 실로 만든 제품은 어떨까”하는 아이디어에서 슈퍼 더블 소프트(SWS)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이 SWS 시리즈는 시키보가 개발한 특수 방적 방법으로 잔털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천에서 기모한 잔털과는 다르게 촉감이나 부풀어 푹신한 감을 보이려는 것이 SWS의 특성이며, 실에서의 많은 잔털로 독특한 촉감을 가지게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 방적 단계에서 어떻게 잔털을 만들어 내느냐가 시키보의 전략으로 되어 있다. 보통은 잔털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사절이 많아지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2004년 니트 전시회”에서 SWS 시리즈를 발표하였더니, 유명 브랜드 메이커가 이 실을 원사로 사용키로 결정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큰 반응이 있었으므로, 2005년용으로는 면 70%、양모 30% 혼방 소재를

개발하여 편포 중심으로 횡편 소재용 실로서 판매할 생각이다.

시키보가 생산하는 주요 SWS 시리즈 소재들은 순면이나 면 70%、양모 30%로서, 20수~140수/2의 태사로부터 극세사까지 광범위하게 방적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망에 따라 정번수 외의 실도 방적이 가능하다. 용도는 편포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횡편용 실은 실로 판매하기도 하고 있으며, 여성용 니트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